

2025년 국가직·지방직 대비

노범석 한국사 특강

-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 -

해법국사
노범석 교수

테마 01 유네스코 세계 유산 – 주요 문화재

유네스코 지정 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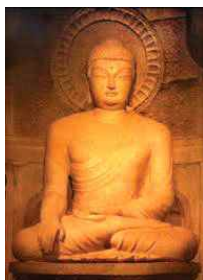
- 세계 유산 : 자연재해·전쟁 등으로 위험에 처한 유산의 보호·복구 활동 등을 통해 인류의 문화유산, 자연유산을 지킬 목적으로 지정하였다.
- 세계 기록 유산 : 기록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보존의 필요성을 증진하고 가능한 많은 사람이 유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2년마다 지정, 세계적 가치가 있는 귀중한 기록물을 적절한 기술을 통해 보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인류 무형문화 유산 : 정식 명칭은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이다. 소멸 위기에 처한 가치있고 독창적인 구전·무형 유산을 선정하여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1. 고인돌(2000년 등재)



- (1) 분포 : 동북아시아 지역은 고인돌이 밀집된 곳으로, 이 중에서 우리나라가 중심 지역이다.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약 30,000여 기에 이르는 고인돌이 발견되고 있다.
- (2) 주요 유적지 : 전라북도 고창군, 전라남도 화순군,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고인돌 유적이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었다.

2. 석굴암·불국사(1955년 등재)



석굴암 본존불



불국사

- (1) 건립 : 751년 신라 경덕왕 대 김대성이 창건하기 시작하여 혜공왕 때 완공되었다.
- (2) 석굴암
 - ① 위치 : 경주 토함산 정상에 위치했으며, 동해를 바라보고 있다.
 - ② 특징 : 신라의 건축·수학·종교·예술이 총집합된 문화 유산이다. 특히, 원숙한 조각 기법과 사실적인 표현으로 구현된 본존불은 동아시아 불교 조각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 (3) 불국사 : 신라인이 그린 불국토(이상적인 세계)를 지상에 옮겨 놓은 것.
 - ① 석가탑과 다보탑 : 대웅전 앞에 석가탑과 다보탑이 존재(석가탑은 2단의 기단 위에 3층의 탑신을 세운 석탑으로, 1966년 탑을 수리하던 중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발견됨, 다보탑은 화려하고 복잡한 모양의 석탑)
 - ② 사바 세계[법화경 근거, 석가모니불 주관 → 대웅전, 다보탑과 석가탑 등이 있는 구역], 극락 세계[무량수경 근거, 아미타불 주관 → 극락전, 연화교 등이 있는 구역], 연화장 세계[화엄경 근거, 비로자나불 주관]

3. 경주 역사 유적 지구(2000년 등재)



포석정

- (1) 특징 : 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유산이 산재해 있는 종합 역사지구이다.
- (2) 구성
 - ① 남산 지구 : 배리 석불 입상과 나정·포석정 등 존재
 - ② 월성 지구 : 신라 왕궁이 있던 월성·계림·첨성대 등이 있음.
 - ③ 대릉원 지구 : 신라 국왕을 비롯한 고분군이 분포한 지역으로 황남리 고분군 등이 있고, 천마도·금관 등 각종 유물들 출토
 - ④ 황룡사 지구 : 황룡사지, 분황사(분황사 모전석탑) 등이 위치
 - ⑤ 산성 지구 : 왕경 방어 시설의 핵심으로, 명활산성 등이 있음.

4. 백제 역사 유적 지구(2015년 등재)



관북리 유적 전경



능산리 고분군

- (1) 특징 :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3개 지역에 분포된 8개 고고학 유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475년 백제의 웅진 천도 이후부터 660년 백제 멸망까지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 (2) 구성
- ① 공주시 : 공산성(공주 방어 목적)과 송산리 고분군 등
 - ② 부여군 : 관북리 유적, 부소산성, 정림사지, 능산리 고분군, 부여나성 등
 - ③ 익산시 : 왕궁리 유적, 미륵사지 등



5. 해인사 장경판전(1995년 등재)



- (1) 용도 : 고려 대장경판 8만여 장을 보관하는 세계 유일의 대장경판 보관용 건물이다.
- (2) 건립 시기 : 조선 초기의 전통적인 목조 건축 양식으로 지어졌으나, 정확한 창건 연대는 알 수 없다.
- (3) 특징 : 환기·온도·습도 조절 등을 자연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 (4) 평가 : 대장경판의 부식을 방지하고 온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자연 환경을 최대한 이용한 보존 과학의 소산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6. 종묘(1995년 등재)



종묘 정전



종묘 영녕전

- (1) 용도 : 조선 왕조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조선 왕조의 사당으로, 종묘 제도가 처음 시작된 중국에도 볼 수 없는 건축물이다.
- (2) 주요 건물
 - ① 정전 : 왕의 신주 19위, 왕비의 신주 30위를 모신 종묘의 주 건물로, 매년 각 계절(봄·여름·가을·겨울)과 선달에 제사를 지냈다(5회). 같은 시대에 만들어진 단일 목조 건축물 중 세계에서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② 영녕전 : 정전에 봉안되지 않은 왕(정종, 문종, 단종, 예종, 인종, 명종, 경종)과 추존된 왕·왕비(목조, 익조, 도조, 환조, 사도세자·장조 등)의 신주를 모신 건물이다.
- (3) 평가 : 16세기 이래로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 유교 사당의 표본이라는 점이 높이 평가되어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 (4) 종묘 제례악 : 종묘에 제사 드릴 때 연주하는 기악과 노래, 무용을 포함하는 종묘 제례악이 함께 거행되었다. 종묘 제례는 의례 절차, 의례 음식과 제기, 악기와 의장물, 의례 음악과 의례 무용 등이 조화를 이루고, 500년 이상 거의 그대로 보존되고 있어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종합적 의례 문화라고 평가되고 있다. 종묘 제례와 종묘제례악도 유네스코 세계 무형 유산으로 지정되었다.

7. 창덕궁(1997년 등재)



인정전



창덕궁 전경

- (1) 건립 시기 : 조선 태종 5년(1405)에 경복궁의 이궁으로 건립되었다.
- (2) 조선 후기의 법궁 : 임진왜란 때 경복궁이 소실됨에 따라 1610년 광해군 때 정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868년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할 때까지 법궁으로 사용되었다.
- (3) 주요 건물 : 정문인 돈화문(우진각지붕), 정전인 인정전(팔작지붕), 선정전(편전), 대조전(왕비의 침전), 희정당(대전, 조선 후기 편전으로 사용) 등
- (4) 특징 : 산세에 의지하여 자연 지형을 크게 변형하지 않고 건물들을 배치하였다. 또한 후원(연못·정자 등)이 있어 왕들의 휴식처 역할을 하였다.

8.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2018년 등재)



- (1) 구성 : 한국의 산지형 불교 사찰의 유형을 대표하는 7개의 사찰로, 통도사·부석사·봉정사·법주사·마곡사·선암사·대흥사가 문화 유산으로 지정되었다.
- (2) 특징 :
 - ① 경사가 완만한 산기슭에 위치한 사찰
 - ② 7세기~9세기에 걸쳐 건립된 전통있는 사찰
 - ③ 종합적인 불교 승원으로서의 특징을 잘 보존, 승가 공동체의 신앙·수행·일상 생활의 중심지로서 기능을 유지

9. 한국의 서원(2019년 등재)



- (1) 용도 : 조선 시대의 지방 지식인들이 건립한 사립 교육기관이다.
- (2) 구성 : 한국 최초의 서원인 소수서원을 포함하여 도산서원, 병산서원, 옥산서원, 도동서원, 남계서원, 필암서원, 무성서원, 돈암서원 9개의 서원이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10. 양동마을과 하회마을(2010년 등재)



양동마을



하회마을

- (1) 특징 : 14~15세기에 조성된 한국의 전통 마을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양반 집성촌이다.
- (2) 양동마을
 - ① 15세기에 혼인을 통해 처가에 들어와 살면서 형성된 마을이다.
 - ② 경주 손씨와 여주 이씨가 모여 살고 있다.
 - ③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한 이연적이 지은 살림집 등이 있다.
- (3) 하회마을
 - ① 16세기에 새로운 정주지를 찾아 이주·정착하여 형성된 마을이다.
 - ② 풍산 류씨가 모여 살고 있는 600여 년간 이어온 동성촌락 명문가이다.
 - ③ 류성룡 생가인 충효당과 풍산 류씨 종가인 양진당 등이 있다.
- (4) 평가 : 조선시대 유교에 뿌리를 둔 동성 마을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곳이다. 조선의 유교적 전통 사상과 건축 양식, 유교적 삶 등이 잘 계승되고 있다.

11. 남한산성(2014년 등재)



남한산성 행궁 전경



남한산성 성벽

- (1) 용도 : 조선 시대, 유사시에 대비하여 임시 수도로서 역할을 담당하도록 계획적으로 건설된 산성이다.
- (2) 삼전도의 굴욕 : 병자호란 때 인조가 이곳에서 47일간 항전하다가 항복하였다.
- (3) 평가 : 7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는 축성술의 시대별 발달 단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12. 수원 화성(1997년 등재)



화성 전경



화성 야간개장

- (1) 건립 목적 : 정조는 1789년(정조 13)에 양주에 있던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으로 옮겨 '현릉원'이라 하고, 현릉원 북쪽 팔달산 밑에 새로운 성곽 도시로 화성을 건설하였다.
- (2) 공사 기간 : 1794년 착공하여 1796년 완공하였다.
- (3) 특징
 - ① 평지 산성으로 군사적 기능과 상업적 기능 겸비하였다.
 - ② 실학의 영향을 받아 거중기·녹로 등을 만들어 사용하는 등 과학적인 축성 방법을 통해 건립되었다.
 - ③ 동·서양의 축성술이 집약된 과학적·실용적인 구조를 갖춘 성으로서 방어적 기능이 뛰어났다.
- (4) 화성성역의궤 : 1801년에 발간된 '화성성역의궤'에는 축성 계획·방법 뿐만 아니라 동원된 인력의 인적 사항·예산 및 임금·공사 일지·시공 기계 등을 상세히 기록하였다.

13. 조선 왕릉(2009년 등재)



- (1) 조선의 왕릉 : 조선 시대의 27대 왕과 왕비의 무덤과 사후 추존된 왕과 왕비의 무덤까지 포함하여 모두 44기(基)가 있다.
- (2) 위치 : "능역은 한양 도성 사대문 밖 100리 이내에 두도록 한다."라고 경국대전에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대부분 왕릉은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다.
 - 서울 소재의 왕릉 : 서초 현인릉(태종, 순조), 강남 선정릉(성종, 중종), 성북 의릉(경종), 성북 정릉(신덕왕후 강씨), 노원 태강릉(문정왕후 윤씨, 명종)
- (3) 평가 : 유교적 장례 풍습과 풍수지리 사상 등이 함축된 공간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다.

14.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2007년 등재)



한국 최초의 세계 자연 유산 지구이다. 한라산 천연 보호 구역·거문오름 용암동굴계·성산일출봉 응회환으로 구성되어 있다.

15. 한국의 갯벌(2021년 등재)



충청도의 서천갯벌, 전라도의 고창갯벌과 신안갯벌 그리고 보성·순천갯벌 등 4개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 자연 유산으로 지정되었다. 2,150종의 생물이 살아가는 귀한 생물종의 보고로 인정받았으며,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16. 가야 고분군(2023년 등재)



경북 고령 지산동 고분군과 경남 김해 대성동 고분군, 경남 함안 말미산 고분군 등 7개의 가야 고분군이 세계 유산으로 지정되었다. 1~6세기 중엽에 걸쳐 한반도 남부에 존재했던 '가야'의 7개 고분군으로, 가야 문화가 주변국과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독특한 체계를 유지하며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테마 02 유네스코 기록 유산 – 주요 기록물

1.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2007년 등재)

(1) 재조대장경(고려대장경판) : 고종 때 몽골의 침입을 부처의 힘으로 막아 보려는 뜻에서 만들어졌다. 81,258매의 목판에 경전·계율 등 불교 관련 기록을 새긴 대장경판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완벽한 형태로 현존하는 판본 자료이다.



(2) 해인사에서 제작한 여러 경판(제경판) 5,987매 : 1098년부터 1958년까지 제작된 불교 관련 기록(경전·역사서·계율·연구 논문·고승 문집·계율판·판화)을 일컫는다.

(3) 특징

- ① 수록된 모든 경(經)은 주제와 장소, 시간, 청중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되고 있다.
- ② 천자문의 순서에 따라 정리되었다. 또한 경전의 권수·설명·위치·배경·번역자 이름·나라 이름까지 기재되었다.

2. 직지심체요절(2001년 등재)



- (1) 특징 :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 활자본(하권만 현존)이다.
- (2) 편찬 및 인쇄 : 공민왕 때 백운 화상이 저술한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을 우왕 때인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하였다.
- (3) 보관 : 주한 프랑스 공사 플랑시에 의해 프랑스로 반출되었다. 현재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3. 훈민정음(해례본)(1997년 등재)



- (1) 의미 :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를 뜻한다.
- (2) 완성 : 세종 25년(1443), 세종은 우리말의 표기에 적합한 문자 체계를 완성하고 '훈민정음'이라 명명하였다
- (3) 해례본 : 정인지를 비롯한 집현전 학사들은 훈민정음에 대해 설명한 한문 해설서인 해례본을 발간하였다. 이 책에는 세종이 직접 쓴 어제 서문(훈민정음 창제의 목적을 밝힌 서문)과 훈민정음 음가 및 운용법을 밝힌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4) 보관 : 1940년 안동에서 발견되어 현재 간송 미술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 (5) 가치 : 독창적으로 새 문자를 만들고 한 국가의 공용 문자로 사용하게 한 일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으며, 더욱이 새 문자에 대한 해설을 책으로 출판한 일도 유례가 없었다.

4. 난중일기(2013년 등재)



- (1) 특징 : 이순신인 1592년 1월 1일부터 1598년 11월 17일까지 7년간의 군중 생활을 직접 기록한 친필 일기이다.
- (2) 평가 : 전쟁 기간 중 수군의 최고 지휘관이 매일매일의 전투 상황과 개인적 소감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5. 동의보감(2009년 등재)



- (1) 편찬 과정 : 어의인 허준이 선조의 명을 받아 편찬에 착수했으며, 광해군 2년(1610)에 완성하였다.
- (2) 특징
 - ① 중국과 우리나라의 의학 서적을 모아 간행하였다.
 - ② 각 병마다 체계적으로 처방(치료법)을 쉽게 풀어 설명하였다.
 - ③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초들을 수록했으며, 민간 보급을 위해 책의 일부에는 한글도 사용하였다.
- (3) 평가 : 예방 의학의 중요성을 강조한 세계 최초의 의서이다. 또한 도교의 영향을 받아 '양생'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6. 조선왕조 의궤(2007년 등재)



- (1) 용도 : 조선 시대의 왕실의 혼례, 장례, 제사, 행차, 잔치, 책봉 등 국가 의식에 관한 실행 보고서이다.
- (2) 특징
 - ① 행사의 전말·의식 절차·비용·참가자의 이름·행사 이후의 논공행상 등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였다.
 - ② 행사의 주요 장면과 주요 도구를 총천연색(원색)으로 그려 넣었다. 필요에 따라 행사의 가장 중요한 행렬은 반차도(班次圖)를 통해 표현함.
 - ③ 대부분 필사본(『화성성역의궤』는 활판 인쇄)이며, 열람자에 따라 어람용(국왕의 열람을 위해 특별 제작, 종이·표지 등 그 형태와 제작 기법 등이 매우 뛰어나)과 분상용(사고 보관)으로 제작됨.
- (3) 평가 : 왕실의 주요 의례를 시기별·주제별로 정리했기 때문에 조선 시대의 의례의 변화상을 확인할 수 있다.

7. 조선왕조실록(1997년 등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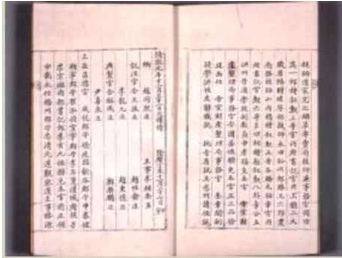


- (1) 편년체 기록물 : 태조~철종 때까지 25대 국왕의 역사를 연월일 순서에 따라 기록한 편년체 역사서이다. 1392년 조선 개국부터 1863년 고종 즉위 전까지 472년간의 역사를 다룬 것이다. 광해군과 연산군은 일기(日記)로 표시되었고, 편찬된 실록을 수정·개수하는 경우도 있었다.
- (2) 내용 : 조선 시대의 정치·법률·군사·외교·제도 등 다방면에 걸친 역사적 사실들을 다루었다. 또한, 사초·시정기·승정원일기·조보 등에서 자료를 뽑아 날짜순으로 기록하였다.
- (3) 시기 및 원칙 : 국왕이 죽은 뒤 다음 왕 대에 편찬했는데, 춘추관을 중심으로 실록청을 설치하여 편찬 작업을 진행하였다. 권력자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국왕도 사초의 내용을 볼 수 없었다.
- (4) 편찬 자료 : 사초(사관이 왕의 말과 행동 기록) + 춘추관 『시정기』·『승정원일기』 + 『조보』 + 『비변사등록』 + 『일성록』 + 개인 문집
- (5) 보관 : 4건을 활자로 발간하여 서울에 1건, 지방·충주·전주·성주·에 3건을 분산 보관하였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서울에 1건을, 지방의 깊은 산속에-강화도 정족산·영주 태백산·무주 적상산·평창 오대산-에 4건을 보관하였다.
- (6) 현재 정족산본, 태백산본, 오대산본이 남아있어 국보로 지정되었다.
- (7) 포쇄 : 3년마다 실록의 부식과 충해를 막기 위해 바람을 씌게 하였다.

※ 실록의 편찬 순서

- (1) 초초 : 자료를 분류하여 그 중 주요 자료를 선별
- (2) 중초 : 초초의 내용을 수정·보완
- (3) 정초 : 최종적으로 완성한 버전
- (4) 세초 : 편찬에 이용된 사초·초초·중초 등은 모두 세검정에서 찢어 없애고 종이는 재활용

8. 승정원일기(2001년 등재)



- (1) 작성 : 조선 시대의 승정원에서 날짜별로 매일 작성하였다.
- (2) 내용 : 역대 국왕의 하루 일과와 지시, 명령, 각 부처 보고, 각종 국정 회의, 상소 자료 등을 망라하였다.
- (3) 현존 : 조선 전기의 것은 왜란 때 없어지고, 인조 이후의 기록만 현존하고 있다.
- (4) 평가 : 단일 기록으로 현존하는 세계 최대 연대 기록물(원본이 단 1부만 존재)이며, 1차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다. 또한, 당시 생생한 역사를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288년간의 천문 기상학 자료로 사용되었다.

9. 일성록(2011년 등재)



- (1) 모체 : 정조가 세손 시절부터 쓴 「존헌각일기」를 모태로 한 것이다.
- (2) 편찬 : 1760년(영조 36)에서 1910년까지의 국정 운영 내용을 일기체로 정리한 것이다.
- (3) 내용 : 국왕의 동정과 국정을 기록하였다. 국왕이 읽은 책의 페이지, 외출할 때 입은 옷과 모자, 가마, 그리고 동선까지 다루었고 주요 국정 현안을 강(표제)과 목(세부 사실)으로 나누어 기록하였다. 국가의 의례에 이용된 문장, 과거의 답안, 신하들의 상소문 등을 종류별로 모아 책으로 엮게 하였고, 그 뒤로도 계속 증보하도록 하였다.
- (4) 특징 : 형식적으로는 국왕 개인의 일기 형식이고,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공식적인 기록물이다. 또한, 매일 기록의 끝에는 편찬자의 관직과 이름을 기재하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였다.
- (5) 가치 : 필사본으로 한질만 편찬된 유일본이다. 따라서 취사선택과 첨삭이 이루어졌던 실록보다 1차 자료로서 가치가 있으며, 승정원 일기보다 압축적이다.

10. 조선 왕실 어보와 어책(2017년 등재)



- (1) 어보와 어책 : 조선의 왕과 왕비, 세자와 세자빈 등을 책봉하거나 존호, 시호, 휘호 등을 수여할 때 만든 의례용 인장과 책이다.
- (2) 특징 : 국왕에게 정통성과 권위를 부여한 것으로, 통치자로서 알아야 할 덕목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문구가 들어있다. 또한, 왕세자나 왕으로 책봉될 때 받고 죽은 뒤에는 신주와 함께 종묘에 봉안되었다. 따라서 살아서는 왕조의 영속성을 상징하고 죽어서도 죽은 자의 권위를 보장하는 신물이었다.
- (3) 가치 : 조선 건국 초부터 근대 시기까지 약 57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작·봉헌되어 왕조의 지속성을 상징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유일하다. 의례용으로 제작되었지만 거기에 쓰인 보문과 문구의 내용, 작자, 문장의 형식, 글씨체, 재료와 장식물 등은 매우 다양하여 당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의 시대적 변천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는 매우 크다.

11. 한국의 유교 책판(2015년 등재)



- (1) 구성 : 조선 시대 유학자들의 저작물을 간행하기 위해 판각한 책판으로, 305개 문중·서원 등에서 기탁한 718종 64,226장이다(공동체 출판).
- (2) 특징 : 각 지역의 지식인 집단들이 시대를 달리하여 만든 것으로, 문학을 비롯하여 정치·경제·사회·대인관계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
- (3) 가치 : 조선시대 향촌에서 '공론'에 의해 제작되어 간행·보관·전승된 것으로, 문중·학맥·서원·지역 사회로 연결되는 집단 지성의 전통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저자의 직계 후손들이 길게는 550년, 짧게는 60년 이상을 보존해 온 기록물로, 모두가 출처가 분명한 진본이기 때문에 그 사료적 가치가 크다.

12.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2017년 등재)



- (1) 내용 : 임진왜란 이후 조선 정부가 일본 에도 막부의 초청으로 1607년~1811년까지 200여 년간 일본에 12차례 파견한 외교사절단에 관한 자료 111건 333점을 총칭한다.
- (2) 구성 : 외교 기록, 여정 기록, 문화 교류의 기록으로 구성되었다.
- (3) 평가 : 단절된 국교를 회복하고, 양국의 평화적인 관계 구축 및 유지에 크게 공헌하였다.

13. 국채보상운동 기록물(2017년 등재)



- (1) 내용 : 1907년에 일어난 국채보상운동의 전 과정을 보여주는 총 2,470건의 기록물이다.
- (2) 구성 : 수기 기록물, 일본 정부 기록물, 당시 실황을 전한 언론 기사(기록물) 등으로 구성되었다.
- (3) 평가 : 국가적 위기에 자발적으로 대응하는 시민적 책임 의식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역사적 기록물로 평가받고 있다.

14. KBS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2015년 등재)



- (1) 내용 : 1983년 6월 30일 밤 10시 15분부터 11월 14일 새벽 4시까지의 KBS에서 방송한 관련 기록물이다.
- (2) 구성 : 방송기간 138일, 방송시간 453시간 45분 동안 생방송한 비디오 녹화원본 테이프 463개와, 담당 프로듀서 업무수첩, 이산가족이 직접 작성한 신청서, 일일 방송진행표, 큐시트, 기념음반, 사진 등 20,522건의 기록물을 총칭한다.
- (3) 평가 : 텔레비전을 활용한 세계 최대 규모의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의 기록물이라는 데서 그 역사적 의의가 있다. 1985년 남북이산가족 최초 상봉에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15. 새마을 운동 기록물(2013년 등재)



- (1) 내용 :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이 1970년부터 1979년까지 새마을 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약 22,000여 건의 자료를 총칭한다.
- (2) 평가 : 새마을 운동은 당시 최빈국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는 데 초석이 된 것으로 여겨진다.

16.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2011년 등재)



- (1) 내용 : 광주 민주화 운동의 발발과 진압, 그리고 이후의 진상 규명과 보상 등의 과정과 관련해 정부, 국회, 시민 단체, 그리고 미국 정부 등에서 생산한 방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기록물이다.
- (2) 평가 :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은 물론, 아시아 여러 나라의 민주화 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민주화 과정에서 실시한 진상 규명 및 보상 사례도 좋은 선례가 되었다는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17. 4·19 혁명 기록물(2023년 등재)



- (1) 내용 : 1960년대 봄 대한민국에서 발발한 학생 주도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1019점의 기록물이다.
- (2) 평가 : 1960년대 세계 학생 운동에 영향을 미친 기록유산으로서 세계사적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18. 동학 농민 혁명 기록물(2023년 등재)



- (1) 내용: 1894년에 일어난 동학 농민 운동과 관련한 185점의 기록물이다.
- (2) 평가 : 조선 백성들이 주체가 되어 자유, 평등,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기 위해 노력했던 세계사적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테마 03 주요 문화재 총정리

1. 고대의 고분

1) 고구려

(1) 돌무지무덤(초기)

- 초기에 돌을 정밀하게 쌓아올린 돌무지무덤 만듦.
- 장군총: 잘 다듬은 화강암을 계단식으로 7층 가량 쌓아서 올림.

(2) 굴식 돌방무덤(후기)

- 돌로 방을 만들고, 그 위에 흙을 덮어 봉분을 만듦.
- 벽과 천장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구조
- 무용총(수렵도), 각저총(씨름도), 쌍영총(두 개의 팔각 기둥)

2) 백제

(1) 한성 도읍

- 계단식 돌무지무덤(석촌동 고분 등) 만듦.
- 백제 건국 주도 세력이 고구려 계통임을 확인

(2) 웅진 도읍

- 벽돌무덤: 무령왕릉(중국 남조 양나라의 영향, 벽화 없음, 지석 발견, 목관)
송산리 6호분(벽화 있음, 중국 남조 양나라의 영향)
- 굴식 돌방무덤: 송산리 1~5호분, 거대한 규모

(3) 사비 도읍

- 굴식 돌방무덤: 규모가 작고 세련됨, 능산리 고분 등

3) 신라

(1) 통일 이전 돌무지덧널무덤

- 시신을 넣은 나무 관 위에 돌을 쌓고 흙으로 덮음
- 주로 신라에서 만듦, 단장의 형태, 도굴 어려움(부장품 多)
- 천마총(천마도), 호우총(호우명 그릇), 황남대총 등

(2) 통일 이후

- 화장(불교 영향)과 규모가 작은 굴식 돌방무덤 유행
- 김유신묘: 봉토 주위에 돌레돌을 두르고 12지신상 조각
- 경덕왕릉, 패릉(문인상·무인상)

4) 가야

- 금관가야: 김해 대성동 고분(다량의 덩이쇠, 판갑옷)
- 대가야: 고령 지산동 고분(금동관)

5) 발해

- 정혜공주 묘: 굴식 돌방무덤, 모줄임 천장구조(고구려의 영향), 묘지와 돌사자상 등 출토
- 정효공주 묘: 벽돌무덤(당나라의 영향), 평행고임 구조(천장), 묘지

2. 건축

1) 고대

(1) 고구려

- ① 안학궁: 장수왕, 평양, 가장 규모가 큰 궁궐로 추정
- ② 장안성: 평원왕, 평양, 4개의 성곽[내성(궁궐), 북성(후방 방위), 중성(행정 기구), 외성(민가)]

(2) 백제

- ① 부여 관북리 유적지(부여 사비 시대의 궁궐터로 추정), 무왕 때 미륵사 등 건립

(3) 신라

- ① 진흥왕: 황룡사 건립
- ② 통일 이후 - 불국사(불국토의 이상을 조화와 균형 감각으로 표현),
- 석굴암(화강암으로 만든 인공 석굴)
- 안압지: 연못과 인공 섬·구름·건물 등이 조화

(4) 발해

- ① 상경성터 - 상경 용천부(영안)에서 발견, 당나라 장안성을 본떠 만들.
- 외성을 두르고 그 안에 내성을 쌓음, 주작대로(당 영향), 온돌 장치(고구려 영향)

2) 고려

(1) 궁궐과 사원 중심

(2) 주심포식 건물

- ① 전기에 주로 유행, 13세기 이후에 지은 일부 건물이 현존
- ② 안동 봉정사 극락전: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 배흘림기둥, 맞배지붕
- ③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고려 후기 대표적인 목조 건축물, 배흘림기둥, 팔작지붕
- ④ 예산 수덕사 대웅전: 충렬왕 때 건립, 맞배지붕, 백제의 목조 건축 양식 계승

(3) 다포식 건물

- ① 고려 후기에 등장, 원의 영향을 받은 건축물, 조선 시대 건축에 큰 영향 미침.
- ② 황해도 성불사 응진전, 함경북도의 석왕사 응진전 등

3) 조선 시대

(1) 15세기

- ① 궁궐: 경복궁(태조, 임진왜란 때 소실), 창덕궁(태종,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창경궁(성종)
- ② 성문: 송례문, 개성의 남대문·평양의 보통문(고려와 조선의 과도기적 형태)
- ③ 불교 건축: 무위사 극락전, 해인사 장경판전(팔만대장경 보관)

(2) 16세기: 서원 건축 활발(사찰의 가람 배치 + 주택 양식) → 옥산 서원(경주), 도산 서원(안동) 등

(3) 17세기

- ① 불교의 지위 향상: 양반 지주층의 경제적 성장 반영
- ② 규모가 큰 다층의 사원 건축: 금산사 미륵전, 화엄사 각황전, 법주사 팔상전

(4) 17세기

- ① 부농과 상인의 지원 → 장식성이 강한 사원 건축(논산 쌍계사, 부안 개암사, 안성 석남사)
- ② 수원 화성: 정조 때의 문화적 역량 집약, 성곽 시설(방어+공격)

(5) 19세기: 국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경복궁 중건(근정전, 경회루)

3. 탑: 부처의 사리나 불상·불경을 보관

1) 고대

- (1) 고구려: 주로 목탑 건립(현존하지 않음)
- (2) 백제: 미륵사지 석탑(목탑의 형태가 많이 남아 있음.), 정림사지 5층 석탑(미륵사지 석탑을 계승)
- (3) 신라
 - ① 선덕여왕: 분황사 모전 석탑(돌을 벽돌 모양으로 가공), 황룡사 9층 목탑(자장 건의)
 - ② 중대: 감은사지 3층 석탑, 불국사 3층 석탑(석가탑), 다보탑(화려), 화엄사 4사자 3층 석탑
 - ③ 하대: 진전사지 3층 석탑(기단과 탑신에 불상 조각),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팔각 원당형)
- (4) 발해: 대부분 벽돌로 쌓은 전탑, 탑 아래에 무덤 조성(영광탑)

2) 고려

- (1) 다각 다층탑 多(중국 영향), 석탑의 몸체를 받치는 받침 보편화
- (2) 전기
 - ① 개성 불일사 5층 석탑(고구려 양식), 부여 무량사 5층 석탑(백제 양식), 개성 현화사 7층 석탑(신라 양식 + 고려)
 - ② 월정사 8각 9층 석탑(송), 고달사지 승탑(신라 팔각 원당형 승탑 계승)
- (3) 후기: 경천사 10층 석탑(원) → 원각사지 10층 석탑(조선 세조)에 영향

테마 04 기출 문제로 정리하기

1. 밑줄 친 '가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4년 국가직 9급

우리 왕후께서는 좌평 사택적덕의 따남으로 지극히 오랜 세월에 선인(善因)을 심어 이번 생에 뛰어난 과보를 받아 만민을 어루만져 기르시고 삼보(三寶)의 동량(棟梁)이 되셨기에 능히 가람을 세우시고, 기해년 정월 29일에 사리를 받들어 맞이하셨다. 원하옵나니, 영원토록 공양하고 다함이 없이 이 선(善)의 근원을 배양하여, 대왕 폐하의 수명은 산악과 같이 견고하고 치세는 천지와 함께 영구하며, 위로는 정법을 넓히고 아래로는 창생을 교화하게 하소서.

- ① 목탑의 양식을 간직한 석탑이 있다.
- ② 대리석으로 만든 10층 석탑이 있다.
- ③ 성주산문을 개창한 낭혜 화상의 탑비가 있다.
- ④ 돌을 벽돌 모양으로 만들어 쌓은 모전 석탑이 있다.

2. (가)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4년 지방직 9급

(가)은/는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한 것이다. 독일 구텐베르크가 인쇄한 책보다 70여 년 앞서 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 ① 최윤의 등이 지은 의례서를 인쇄한 것이다.
- ② 몽골의 침략을 물리치려는 염원을 담고 있다.
- ③ 현존하는 금속 활자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
- ④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처방과 약재 등이 기록되어 있다.



3.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4년 법원직 9급

김해·고령 등 (가) 고분군 7곳,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됐다.
유네스코 “고대 문명의 주요 증거”

한반도 남부에 남아 있는 유적 7곳을 묶은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됐다. ...
(가) 은/는 기원 전후부터 562년까지 주로 낙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번성한 작은 나라들의
총칭이다. - 2023. 9. 18. □□일보 -

- ① 낙동강 하류의 변한 지역에서 성장하였다.
- ② 철기를 활발히 생산하여 주변국에 수출하였다.
- ③ 골품에 따라 관등이나 관직 승진에 제한이 있었다.
- ④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전기 가야 연맹이 결성되었다.

4. 밑줄 친 ‘이 나라’의 문화유산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4년 국가직 9급

송나라 사신 서긍은 그의 저술에서 이 나라 자기의 빛깔과 모양에 대해, “도자기의 빛깔
이 푸른 것을 사람들은 비색이라고 부른다. 근래에 와서 만드는 솜씨가 교묘하고 빛깔도
더욱 예뻐졌다. 술그릇의 모양은 오이와 같은데, 위에 작은 뚜껑이 있고 연꽃이나 옆드린
오리 모양을 하고 있다. 또, 주발, 접시, 사발, 꽃병 등도 있었다.”라고 하였다.

- ① 안동 봉정사 극락전
- ② 구례 화엄사 각황전
- ③ 예산 수덕사 대웅전
- ④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5. (가), (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옳게 짝지은 것은?

2024년 지방직 9급

(가)은 고려 시대 건축물이며 배흘림 기둥과 주심포 양식으로 단아하면서도 세련된 아름
다움을 담고 있다.
(나)은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조선 시대 건축물 중 유일한 5층 목탑이다.

- | (가) | (나) |
|---------------|------------|
| ①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 김제 금산사 미륵전 |
| ②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 보은 법주사 팔상전 |
| ③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 | 김제 금산사 미륵전 |
| ④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 | 보은 법주사 팔상전 |

6. 삼국 시대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9년 지방직 9급

- ① 선덕여왕 때에 첨성대를 세웠다.
- ② 목탑 양식의 미륵사지 석탑이 건립되었다.
- ③ 가야 출신의 우륵에 의해 가야금의 신라에 전파되었다.
- ④ 사신도가 그려진 강서대묘는 돌무지 무덤으로 축조되었다.

7.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2년 국가직 9급

- ① 미륵사지에는 목탑 양식의 석탑이 있다.
- ② 정림사지에는 백제의 5층 석탑이 남아 있다.
- ③ 능산리 고분군에는 계단식 돌무지무덤이 있다.
- ④ 무령왕릉에는 무덤 주인공을 알려주는 지석이 있었다.

8.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6년 교육행정직 9급

고려 시대에는 불교 사상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불교 관련 저술을 모아 체계적으로 정리한 대장경이 만들어졌다. ㉠현종 때의 경판이 임진년 몽골의 침입으로 불타 버렸고, 이에 왕이 신하들과 더불어 다시 발원하여 도감을 세우고 16년 만에 ㉡새 경판을 완성하였다.

- ① ㉠ - 합천 해인사에 소장되었다.
- ② ㉠ - 교장도감에서 제작한 경판이다.
- ③ ㉡ -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 ④ ㉡ - 불교 경전 주석서를 수집하여 간행한 속장경이다.

9.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된 것만을 모두 고른것은? 2017년 국가직 7급

㉠ 『일성록』 ㉡ 『난중일기』 ㉢ 『비변사등록』
㉣ 『승정원일기』 ㉤ 한국의 유교 책판

- ① ㉠, ㉡ ② ㉠, ㉡, ㉣
- ③ ㉠, ㉡, ㉣, ㉤ ④ ㉠, ㉡, ㉢, ㉣, ㉤

10. 조선 시대 의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년 지방직 9급(하)

- ① 가례도감의궤는 임진왜란 이후부터 편찬되기 시작하였다.
- ② 조선왕조지궤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 ③ 정조 때 화성 행차 일정, 참가자 명단, 행차 그림 등을 수록한 의궤가 편찬되었다.
- ④ 가례도감의궤의 말미에 그려진 반차도에는 당시 왕실 혼례의 행렬 모습이 담겨 있다.

11.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년 국가직 7급(하)

(㉠)에 소속된 주서는 왕과 신하 간에 오고 간 문서와 국왕의 일과를 매일 기록하여 (㉡)을/를 작성하였다. 왕이 바뀌면 전왕의 통치 기록인 사초, 시정기, 조보 등을 합하여 (㉢)을/를 편찬하여 4부를 만들고 한성에는 (㉣)에 보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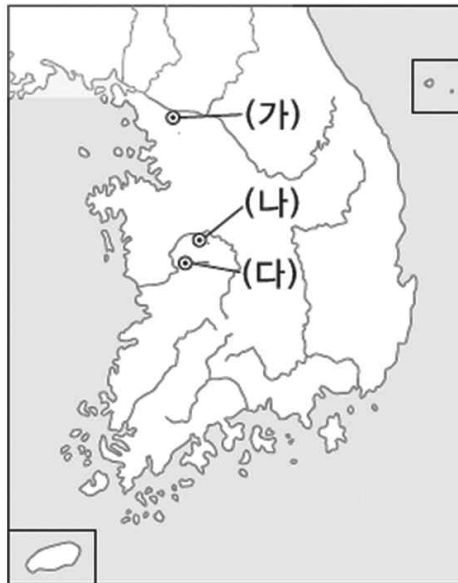
- ① ㉠ - 의정의 합좌 기관으로 백관과 서무를 총괄하였다.
- ② ㉡ - 실록 편찬의 기본 자료였으며, 세계 기록 유산이다.
- ③ ㉢ - 임진왜란 이후 전주, 성주, 충주에 지은 사고에 각기 보관하였다.
- ④ ㉣ - 국왕의 교서를 제찬하고 외교 사무를 관장하였다.

16. 다음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지정된 백제 역사 유적 지구 문화유산 중 부여군에 속한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18년 국가직 7급

- | | |
|----------------|-----------|
| ㉠ 정림사지 | ㉡ 공산성 |
| ㉢ 부소산성과 관북리 유적 | ㉣ 송산리 고분군 |

- ① ㉠, ㉢ ② ㉠, ㉡
③ ㉡, ㉣ ④ ㉢, ㉣

17. (가)~(다)는 백제의 수도들이다. (나)를 수도로 삼았던 시기의 문화재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년 법원직 9급



①



②



③



④



